사설



이 종 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상임이사

요즘, 나라 안팎으로 '인간'이 무서 하고 있다. 운 고초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왕 관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 첨단과학시대 를 이룬 만물의 영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사태로 당연하 게 여겼던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고, 익숙했던 삶이 힘들어졌다. 바이러 스가 천산갑이나 황금박쥐에서 나왔 든. 전쟁을 위한 실험에서 비롯했든.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다.

천혜의 제주 풍광도 많이 아프다. 불법으로 버리는 폐기물과 쓰레기 때문이다. 장소는 산과 오름, 들녘,

제주의 풍광이 아프다

하천, 바다 등 구분이 없다. 버려지 는 것도 깨진 변기, 부서진 세면대, 녹슨 냉장고, 썩은 소파 같은 폐기물 에서부터 플라스틱 제품들, 비닐봉 지에 담긴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종 류도 다양하다. 이들은 미관만 해치 는 게 아니다. 산야와 바다를 오염시 키고, 그 안의 생명체들에게 해를 가

지난 4월, 열매를 제대로 맺기도 전에 스러져간 '가시리의 유채꽃들' 을 기억한다. 이들은, 제철에 무리지 어 흐드러지게 핀 죄, 아름다운 죄, 벌과 함께 노닌 죄 밖에 없었다. 사람 들을 유혹하지도 않았다. 그 가녀린 꽃들이 육중한 굴삭기에 밀리고 밟혀 스러져갔다. 바이러스의 전염 예방 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수칙을 지키지 않 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가야 했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 유채꽃밭 사

태의 원인도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

심이다. 유채꽃 제거는 공공연히 이 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치자. 하지만, 폐기물과 쓰레기의 불법투 기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범죄와 다르지 않다.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의 수거 체계가 전국 최고 수 준인 제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 어날 수 있을까? 그게 자해인 줄을 모르는 몰상식과 자기만 아는 몰염 치가 유감스럽다.

제주는 경관이나 자연이 더 이상 청정하지 않다. 경관의 피해까지 거 론하기는 부끄럽다. 자연 자체가 오 염되며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 야에서 부는 바람이 썩는 쓰레기와 화장실 변기 따위를 스쳐 우리에게 다가온다. 연근해에서는 바닷물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려내고 있 고, 어떤 생명체들은 플라스틱을 뱃 속에 품은 채로 죽어 시신을 썩히며 또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생태계 가 위험하다.

생태계는, 산천초목과 해양식물은 물론 큰 짐승에서부터 미물에 이르기 까지 서로 꼭 맞물려 있다. 사람도 그 안에 있다. 저 '가시리 유채 밭'의 꽃 과 벌들은 새해에도 그곳을 찾을까? 생태계의 일원은 그 무엇이든 사람만 큼 그 삶이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 다. 더욱이, 그들은 인간의 생존과 크 든 작든 연관돼 있다.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 안에 멸종한다.'고 역설했다.

아픈 제주 풍광의 치유와 보호에 모두 나서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은 "코로나19 확대는 우리의 학대에 대한 지구의 반응이며, 자연을 해치 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 자연환경을 잘 지키지 않으 면, 이는 어느 날 우리의 생존을 위협 하는 무서운 재앙으로 응답할지 모른 다. 당국과 관련단체들의 쓰레기 수 거와 지도 및 단속, 그리고 바른 시민 의식의 확산이 중차대하고 시급하다.

감염 확산에 휴가철 맞물려 걱정스럽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끝이 없습니다. 해외 방문 이력을 가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에 서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 든데다 제주를 해외여행 대체지 로 선호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 렸습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죌 수밖 에 없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달들어 주말과 주중 하루 평균 3만명의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 습니다. 일별 입도객은 지난 1일 3 만2464명, 2일 3만2316명, 3일 3 만3229명, 4일 3만1335명, 5일 3 만1495명 등 지난 5일간 총 16만 840명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같 은 기간(17만8042명)보다 9.7% 감소했지만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으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이 제주로 몰려들 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도 유치하고 코로 나19 확산도 막아야 한다는 얘깁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 그래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 다. 코로나19 차단은 물론 입도 단 계에서부터 출도까지 안전한 휴가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수

니다. 특히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 관광객 수요가 제주로 집중될

도권을 비롯 광주·대전 등 곳곳 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시의 경우 무섭게 확산되면서 사 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 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외 상 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급 속도로 확산되면서 다시 봉쇄조 치를 내리는 국가가 늘어날 정도 로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이동량 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더욱 긴장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 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 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코로나 이겨내요



박 소 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 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 서, 영세자영업자, 50인 미만의 중소 기업(일부 인력공급업 및 항공지상조 업은 근로자수 무관) 근로자 중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고 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에게는 지난 3~5월 사이의 소득 감소 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총 15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특수형 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적용된다는 점은 특별하다. 그 예로 원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증빙서류 중 사업주로부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소득 금액증명원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노무 제공확인서 또는 거래당사자와의 계 약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 통장입금거래내역을 증빙서류로 지참하면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사업 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의 카드매출 내역과 통장사본을, 무급휴 직자는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발 급), 소득금액증명원과 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지참하면 된다.

제주고용센터에서 7월 20일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도 제주고용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생계안정 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스-in

강성민 의원 SNS 의정활동 결과 보고

블로그・페이스북 이용해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 2동을)이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 입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 한 전반기 의정활동 결과보고로 도민들과 소통에 나서 눈길.

강 의원은 7일 자신의 블로그 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반기 의정 활동 결과보고를 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코로나19 대응, 제주의 지 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가장 입법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

그러면서 "남은 2년 동안 더 열 심히 일하겠다"고 약속. 오은지기자

이동식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제주시 애월읍이 곽지해수욕 장이 개장한 이달 1일부터 폐장 하는 8월 말까지 해수욕장 주차 장에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동 식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 운영. 이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생

활쓰레기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취지.

읍 관계자는 "본격 여름 휴가철 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돼 재활용도움센터 현 장에 청결지킴이 2명도 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카카오 정상출근제 전환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가 7일 정상출근제로 전환하고 업무 에 돌입해 눈길.

카카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카카오 본 사를 비롯해 전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 근무에 들어갔고, 4월부터는 주1회 출근, 4회 원격 근무를 시행하다가 이달 7일부터 정상출근제로 전환하고 본격 업무 를 시작.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들이 원 격근무를 해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 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코로나 블루 치유센터' 검토하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높 습니다.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 아 기업인·상인·농어민 모두 발만 동동 구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으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확진 자와 접촉자 수의 급증으로 새로 운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가 일정 기간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감 염 치료와 별개로 우울증을 호소 하는 사례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도내 코로나19 감염증 현황은 7일 0시 기준 확진 20명, 격리해 제(완치) 18명, 자가격리 276명 (확진자 접촉 35명, 해외입국 241명) 등으로 현재진행형입니 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격리자와 상당기간 면회를 못한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증상 의심 일반인들 에까지 심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지만 우울증 을 호소하는가 하면 격리자의 극 단적 선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외국서 오는 비행기

내 확진자 접촉 이유로 제주도인 재개발원에 격리된 2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도의회 이승아·강성민 의원실 과 송재호 국회의원실 공동주관 으로 6일 열린 '코로나 블루(우 울증)의 사회적 위기진단과 처방 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시의적 절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고도원 국립산림치유원장은 이날 "지금 은 사회적 힐링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제주가 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힐링 망을 구축할 것"과 전국 권역별 거점 '국민안심치유센터'지정을 제언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론 도 내 시설 및 치유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카렌시아(안식처) 조성 등도 주장했습니다. 제주가 산림 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를 지향 할 자원들로 넘쳐난다는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도 역시 코로나19 장기화 에 대응하고, 사회적 힐링의 세부 방법들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卫

임수옥(레지나・前 어린이집 원장・ **향년 75세**)께서 서기 2020년 7월 7일 9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 니다.

- 포: 2020년 7월 9일(목요일)
- 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 ▶ 장례미사: 천주교 중앙성당 2020년 7월 10일(금요일) 오전 10시
- ▶ 장 지:양지공원→해안동 가족묘지

남 편 좌 부 성

아들좌용민 며느리 변지영 용관 손현 진

손 자 좌 혁 준 손 녀 좌 윤 주

※ 연락처: 좌부성 010-2758-4671 좌용민 010-3694-4671 좌용관 010-4422-4671 변지영 010-7456-4949 손현진 010-2529-1002

부 卫

수안이공 영륜[(주)미래제주 대표이사· **향년 61세**]께서 서기 2020년 7월 7일 13시 2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 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7월 9일(목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7월 10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 장 지: **양지공원**

오 현 숙(명순)

이 은 재

아 들 이 혁 재

終 이 영 환

※ 연락처 : 오현숙 010-3045-2254 이혁재 010-9443-2256

이은재 010-9630-2254 이영환 010-9101-2800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0년 6월 26일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 는 분은 2020년 9월 7일까지 그 채권액 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 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7월 8일

주식회사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44, 207동 1203호 (노형동, 노형뜨란채) 청산인 강철진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흥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732 -5552

서귀포지사

해외·육지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23713-1951

상담 유옥종010-5015-1951